31일부터 만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주시, 24일부터 사전예약… 자궁경부암백신 무료접종도 만 13~17세 여성 · 18~26세 저소득층까지 확대

만 5~11세 어린이도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31일부터 만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기초접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만 5~11세 어린이의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은 8주이며,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적극 권고되지만, 과거 코로나19에 걸린 적 있는 소아에게는 권고되지 않는다.

접종 권고 대상은 △만성 폐·심장·간·신장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등이며, 이 밖의 일반 소아는 자율접종 대상이다.

만 12~17세 청소년 코로나19 3차 접종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고위험군 청소년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고,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외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코로나19 3차 접종 사전예약과 잔여백신 당일접종은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예약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기존 만 12세(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출생자)였던 자궁경부암 예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국가지원대상이 올해부터는 만 13~17세(2004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1995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저소득층 여성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백신은 HPV 2가·4가 백신 두 종류가 지원된다. HPV 2가 또는 4가 백신을 처음 접종한 나이가 만 12~14세인 경우, 1차 접종 기준으로 6~12개월 이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1차 접종 연령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 총 3차례 접종을 받게 되는데, HPV 2가 백신은 첫 접종 후 1개월,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며, HPV 4가 백신은 첫 접종 후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다. 이미 접종을 받은 경우 기접종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남은 접종 횟수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의 경우 접종 당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를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소아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때이니만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예방을 위해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또한 더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HPV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56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2차 기본접종을 완료했으며, 현재 3차 접종 및 4차 접종을 진행 중이다. /김윤상 기자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로 안전성 확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공동주택 대상 제도 운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변호)는 시민 6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제도는 먹는물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돗물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와 전주시가 인증하는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주지역 58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수돗물이 환경부에서 제정한 59개 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특히 검사를 완료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수질검사성적서' 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가 발급됐으며,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지돼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맑은물사업본부는 청정1급수 용담호 상수원부터 각 가정 수도꼭지수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59개 항목보다 46개 많은 선진국 수준인 106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진 일반시민들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 시행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공동주택과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수돗물의 음용율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와 옥내급수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법 규정에 의거해 연 2회 물탱크 청소 및 연 1회 저수조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경과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검사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자격심사 가장 먼저 통과

우범기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 검증을 통과하고, 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입지자 중 첫번째로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6.1지선을 향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도당 검증위는 이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당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범죄 이력이나 다주택 보유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다"며 우 예비후보에게 가장 먼저 등록 자격을 통보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많은 분들이 전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이 전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가난의 고리를 끊고, 전주의 곳간을 채우고, 시민의 지갑을 채우는 확실한 예산해결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과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한 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 등 중앙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 경제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광주부시장 시절 광주형 일자리를 태동하게 했고, 전북 정무부지사 때는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이끌어 낸 일자리 후보로 잘 알려져 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 검증을 통과하고, 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입지자 중 첫번째로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전주에 살다, 전주를 읽다'

시, 이달 말부터 7월까지 지역 작가 초청 특강 운영
29일 신정일 문화사학자 초청 '전주 택리지' 예정

전주시민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전주이야기 특강이 열린다.

전주시는 이달 말부터 오는 7월까지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전주를 소재로 한 책을 쓴 지역 작가를 초청해 '전주에 살다, 전주를 읽다'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첫 번째 시간에는 신정일 문화사학자가 초청돼 '전주 택리지' 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신정일 문화사학자는 동해 해파랑길, 부안 마실길, 소백산 자락길 등을 제안하고 이야기가 있는 옛길을 발굴해 알리는 등 도보답사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1989년부터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 등 직접 우리 땅 곳곳을 걸으며 체득한 결과물을 저서와 강연으로 풀어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토교과서라 불리고 있다.

역사와 문화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신정일 문화사학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지리 등 전주 택리지에 대한 가치와 직접 걸어온 결과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이종근 기자 초청, '음식으로 만나는 전주 이야기' (4월 26일) △김근혜 작가 초청, '책 읽고 다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5월 26일) △김병용 작가 초청, '전주의 길, 전주의 골목' (6월 22일) △손상국 PD 초청, '전라감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7월 27일) 등 전주와 관련된 주제의 특강이 매달 한 차례씩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주에 살다, 전주를 읽다' 특강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또는 책기둥도서관(063-230-1845)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4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락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주 지역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환경사랑 입체 정크아트 · 일러스트 전시

전주자연생태관, 6월 15일까지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전주시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주자연생태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를 개최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생활 속 폐품인 알루미늄캔과 같은 고철, 플라스틱, 폐전자제품으로 만든 입체 정크아트(Junk Art) 10점과 환경사랑 일러스트 10점이 전시된다.

특히 '2021년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품들이 전시돼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긴급함과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함께 생태계 오염이 다시 우리에게 도미노처럼 되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생태관이 휴식의 장소, 환경생태 교육의 장소, 기후위기·탄소중립 체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자연생태관은 지난해 10월 환경부로부터 공공부문 탄소중립 거점모델로 선정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에너지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다양한 체험형 컨텐츠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주자연생태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를 개최한다.